

에도시대 말기의 동란과 시나가와 포대(砲臺)

대외 위기 심화와 페리 함대 내항

18세기 말경부터 일본 근해에 외국선이 많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위기감을 느낀 에도 막부는 전국적 규모로 연안 정비를 강화하는데, 외국선의 수는 점점 늘어나, 각지에서 사건이 다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853년 6월의 미국 페리 함대 내항은 막부의 소재지인 에도만(灣)에서 일어난 일로, 에도 막부를 뒤흔드는 대사건이 되었습니다.

시나가와 포대(砲臺) 축조

에도 막부는 에도만(灣)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 시나가와 연안에서부터 후카가와스자키(지금의 도쿄도 고토구)에 걸친 해상에 11개의 포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즈노쿠니 지역 니라야마(지금의 시즈오카현 이즈노쿠니시)의 다이칸(代官: 지방 행정관의 관직명)인 에가와 다로자에몬 히데타쓰가 유럽의 서책을 토대로 포대 축조를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재정난 등의 이유로 완공된 것은 제 1부터 제 3, 제 5·제 6 포대 및 나중에 추가로 구축된 육지로 이어지는 고텐야마시타 포대, 총 6개에 그쳤습니다.

고텐야마의 외국 공사관

1858년에 미국·네덜란드·러시아·영국·프랑스의 5개국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외국 공사의 에도 주재가 결정되어, 공사관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을 배척하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주종 관계를 떠나 활동하는 무사들이 외국인을 습격하는 사건을 초래했습니다. 1861년에는 고텐야마에

공사관 건설이 계획되어 우선 영국 공사관이 세워졌는데, 이듬해 12월 12일에 시나가와 역참에 있는 여인숙 '도조사가미'에 집합한 조슈번(지금의 야마구치현 하기시 주변)의 무사들에 의해 공사관은 불타고 말았습니다.

영국 군함의 시나가와 내항과 방비 계획

1862년 8월에 사쓰마번(주로 지금의 가고시마현) 무사들에 의해 영국인 살상 사건인 '나마무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듬해 5월에는 사건의 배상금 문제를 둘러싸고 영국 군함이 시나가와 연안에 내항했습니다. 막부는 시나가와 제4·제7포대의 축조 재개 및 옛추지마(지금의 도쿄도 고토구)에서 오이무라 마을까지 어이지는 해안 일대에 포대를 축조하는 방비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와 석재 가격 급등, 조슈 전쟁* 등의 영향으로 완공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조슈 전쟁: 에도 막부와 조슈번(지금의 야마구치현 하기시 주변)의 전쟁

에도 시대 말기의 우치코와시 및 시나가와 역참

'우치코와시'는 쌀 가격이 상승하여 궁핍한 생활에 시달리던 민중들이 일으킨 폭동을 말하는데, 에도 시대를 통틀어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1866년 5월 28일에 일어난 우치코와시는 시나가와 역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에는 에도 전체로 번졌으며 8일 동안 쌀가게, 전당포, 술도가 등 226채가 습격당했다고 합니다.

1_07_01



시나가와 제 5 포대의 토루의 단면
표본

가에이 7년~안세이 원년(1854)

쇼와 20년대 후반~30년대

후반(1950~1960년대)

헤이세이 26년(2014) 시나가와

포대(제 5) 유적(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출토

도쿄도 매장문화재센터 조사·제공

흰색 점선보다 위쪽은 근대 이후의

매립 시에 덮은 흙입니다. 흰색 점선

보다 아래쪽은 포대를 축조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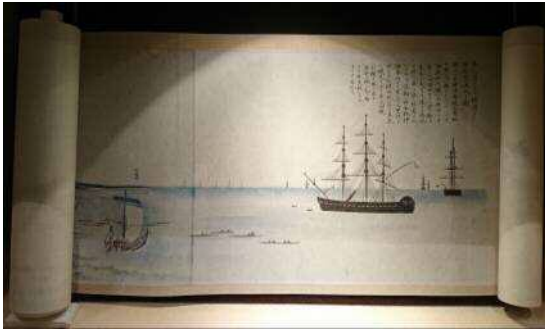
당시의 토루입니다. 토루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흙을 두드려서 굳히는

작업을 반복한 결과, 지층 같은

줄무늬가 형성되었습니다.

1_07_02



외국선이 돌아가는 광경을
가나가와에서 본 그림(복제)

19세기 중반 추정

원사료: 고베시립 박물관 소장(「에도
시대 말기의 풍속을 그린 그림
두루마리」 중)

1854년 3월, 미일 화친조약 체결을
달성한 미국의 페리 함대가
요코하마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광경을 그린 것입니다. 페리 제독은
1853년 6월에 내항하여, 미국의
제 13대 대통령 필모어의 외교
서한을 에도 막부에 전달했는데,
그에 대한 답서를 받기 위해 다시
내항했습니다. 에도만(灣) 방비를
위해 시나가와 연안에 포대를 한창
축조 중이던 시기의 일입니다.

1_07_03



말뚝

가에이 6~7 년(1853~1854)


헤이세이 11 년(1999) 시나가와
포대(제 1) 유적(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출토


제 1 포대 석축 바로 아래에 설치된
삼나무로 만든 말뚝의 머리 부분과
선단부를 절단한 것입니다. 머리
부분에 먹으로 ‘삼간반(三間半)’ (약
6.3m)이라고 적혀 있어 절단했을
때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1_07 에도시대 말기의 동란과 시나가와 포대

<p>1_07_04</p> 	<p>말뚝</p> <p>가에이 6~7 년(1853~1854) 헤이세이 11 년(1999) 시나가와 포대(제 1) 유적(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출토</p> <p>해저에 박혀 있던 말뚝을 뽑은 후에 가로로 둥글게 자른 것.</p>
<p>1_07_05</p> 	<p>사질이암(砂質泥岩)</p> <p>가에이 7 년(1854) 헤이세이 24 년(2012) 시나가와 포대(제 5) 유적(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출토</p> <p>포대 축조를 위해 바다를 매립하는 데는 점토질의 사질이암을 사용했습니다. 포대의 기초 바로 밑과 그 바깥쪽에서 출토되었으며, 바닷물에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p>
<p>1_07_06</p> 	<p>시나가와 제 5 포대에서 사용한 석재</p> <p>가에이 7 년(1854) 헤이세이 24 년(2012) 시나가와 포대(제 5) 유적(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출토</p>

1_07 에도시대 말기의 동란과 시나가와 포대

	<p>안산암이며, 암석을 쪼갬 때에 기구를 박아 넣기 위해, 일렬로 나란히 직사각형의 구멍을 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석벽에 쓰였던 석재는 포대 본체 주변에 버렸는데, 이 돌을 ‘사석(捨石)’이라고 부릅니다.</p>
<p>1_07_07</p> 	<p>시나가와 고텐야마의 마쓰다이라 스루가노카미의 저택으로부터 포대에 사용할 흙을 운반하는 모습(복제)</p> <p>19 세기 중반 추정</p> <p>원사료: 고베시립 박물관 소장(「에도시대 말기의 풍속을 그린 화첩」 중)</p> <p>시나가와 포대 축조에 사용할 흙은 고텐야마, 야쓰야마, 다카나와 센가쿠지 절 등의 산을 깎아서, 바로 앞의 해안에서 배로 실어 날랐습니다. 인부가 5,000 명, 배 수요가 2,000 척에 이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마바리번(지금의 아이치현 이마바리시 주변)</p> <p>마쓰다이라 스루가노카미의 저택은 야쓰야마시타에 있었고, 포대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제 1 포대의 경비를 맡은 가와고에번(지금의</p>

	<p>사이타마현 가와고에서 주변) 마쓰다이라 가문이 주문했습니다. 왼쪽 뒤편에 보이는 시가지는 시나가와 역참입니다.</p>
<p>1_07_08</p> 	<p>포대의 대포를 시험 발사하는 모습(복제)</p> <p>19 세기 중반 추정 원사료: 에가와 문고 소장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p> <p>완공된 6 개의 포대에서 대포를 시험 발사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맨 앞에 고텐야마 및 시나가와 역참마을의 시가지, 그 뒤편에 고텐야마시타 포대 및 제 1· 2· 3· 5· 6, 총 6 개의 포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텐야마에는 구경꾼이 몰려들어, 흥분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藩)이 경비를 맡은 6 개 포대의 합동 연습은 1855년 2월 이후 자주 실시되었습니다.</p>

1_07_09



고텐야마 공사관의 지도(복제)

1862 년경 추정

원자료: 도쿄 대학 사료 편찬소 소장

1861 년에 고텐야마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미국·네덜란드·영국·프랑스의 4 개국 공사관이 들어설 예정인 곳과 그 주변 상황을 기록한

평면도입니다. 중앙에 시나가와 포대 축조 시에 흙을 파낸 장소의 흔적이 있으며, 둘러싸듯이 각국 공사관 건설 예정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에도 막부는 1858 년의 조약 체결 이후 각지에서 외국인 살상 사건이 다발한 것을 감안하여, 고텐야마로 각국 공사관을 옮겨 지어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맨 먼저 건립된 영국 공사관은 완공 직전인 1862 년 12 월 12 일, 다카스기 신사쿠 등 13 명의 조슈번(지금의 야마구치현 하기시 주변) 무사들에 의해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고텐야마에 외국 공사관이 건설되는 일은 없었습니다.